

◇베체트씨병에 의한 대동맥판 폐쇄부전의 수술 치험

김경환, 안혁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
배경 및 목적 : 베체트씨병에서의 대동맥 판막 침범은 가장 심각한 임상양상 중의 하나이나 실제로 이에 대한 보고는 그 예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. 저자들은 이러한 증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수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그 예방책을 찾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.

방법 : 1986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베체트씨병 또는 의증으로 생각되는 대동맥판 폐쇄부전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조사를 통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. 남녀비는 7:1이었고 평균연령은 35.3세[표준오차 1.3]였다.

결과 : 급성기에 약물요법을 시행 후 수술한 경우는 2례였고 나머지 6례 중 4례에서는 지속되는 판막주위부 누출에 대한 진단과정에서 베체트씨병이 발견되었고 2례에서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. 판막주위부 누출로 2차수술을 시행한 환자가 6명이었으며 이중 2명에서 3차수술을 시행하였다. 4명이 1998년 8월 현재 생존해있고 평균 추적기간은 47개월이었다. 생존환자 중 3명에서 동종이식편을 이용하였다. 4명의 환자가 심근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모두 인공판막을 이용한 재치환술을 시행하였고 이중 2례에서 판막주위부 누출로 재수술을 시행하였다

결론 : 베체트씨병의 술전진단이 환자의 예후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수술 전후의 지속적 치료를 통하여 급성기 염증 반응을 최소화 함으로써 수술성적의 향상을 꾀할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. 또한 동종이식편의 이용이 치료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.

책임저자:김경환(서울의대) 발표자:김경환(서울의대)